

강성재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뒤뜰 늙은 고염나무
올해엔 열매도 맺지 못했단다
허물어진 담벼락 아래
가랑잎만 모여 소리 없이 떠난
옛 주인의 모습을 파종하고 있다
치매 걸린 할머니
집 떠나기 전 심었을
파 상추 오이 채마밭엔
주인 잃은 채소들이
잡초들과 어울려
저 혼자 씨 뿌리고 자라고
다시 돌아나갈 몇 차례
수확의 손길이 없는 텃밭에는
옛주인의 흔적마저 지워지고 있다
기우뚱 기울어진 안방문
낡은 창호지 몇 조각이
흔적만 간신히 남은



2004년 한맥문학 시부문 당선, 오레곤 문학회 회원,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원.

문살에 기대어
 바람을 추스르고 있는 사이
 살며시 문고리 당기고 안으로 든다
 어느새 따라 들어 온
 가랑잎 말동무 삼아
 아랫목에 발 뻗고 앉으면
 백발의 노 할머니
 실루엣을 따라
 금세 따뜻하게 실려 오는
 한시절의 모습
 스르르 눈을 감는다
 카랑카랑 할아버지 해소기침 소리
 궁시렁궁시렁 알아들을 수 없는
 할머니 혼잣말 소리
 햇볕드는 앞마당엔
 소꿉놀이하는 아이들 해맑은 소리

홀로 길손을 맞는 이 낡은 집도
 한시절의 감회는 있었겠다

강학희

배꼽

뱃심 없는 날
뿌리와의 은밀한 통로
배꼽을 꾸 - 옥 꼭. 눌러 보라

꼬리 - 이 - 달달
목은 젓내 꼭지 끝에서 번져나는
젓빛 감꽃
푸른 잎새 도닥거림에
휘청하던 등줄기 물이 차오르고
자존심이 뻗뻗이 서는
몸의 중심점은 배꼽이다

배꼽과 배꼽이 만나
생명의 불꽃 이어지고 내가 존재 된다
젓먹인 힘과 젓 먹는 힘이 뭉친
배꼽은 몸의 성장점이다



이대 교육과 졸업. 1976년 도미. 샌프란시스코 거주. 2003년 《순수문학》 시부문 신인상. 한국문인협회, 재미시인협회, 세계한민족작가연합,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뱃심 없는 날
뿌리와의 은밀한 통로
배꼽을 꾸 - 옥 꼭. 눌러 보라

늘 거기 있는 모태, 회귀의 길이 보인다
모천으로 회귀하는
모든 비밀센서는 바로 배꼽 아래 숨겨져 있다
연어의 배꼽을 보라
생생의 중점은 분명 배꼽이다.

강화식

끝나지 않은 연극

회오리바람에
패인 아픔이
우두커니 서 있다.

검은 도시의 무거움이
시간을 기다리자
힘을 물은 입술이 파르르 떴다.

배려는 순간에 뒤돌아서 가버리고
다시 피뢰침으로 돌아와
하늘을 찌른다.

광풍에 시달린 잿빛 눈동자가
바람을 가르는
세월의 무딘 날을 훑치며
일 막이 끝난 무대에
붉게 변한 눈빛이 꽃히자



서울 출생. 2007년 미주 《중앙일보》 시부문 당선. 한국미래문학, 문학 세계 신인상 수상. 미주시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조명이 끊어진다.

고영준

나를 보고 운다

다른 하늘에서 날아 온
참새 한 마리
외줄 전선에 앉아
몸을 파듯 씻고 있다

출렁이는 전선(電線) 따라
퍼덕이던 날개 다시 접고
가슴을 파는 참새

정든 허공(虛空)에 눈을 주다
몸을 떨며 운다.
목을 빼고 운다.
나를 보고 운다.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2003년 미주중앙 신인문학 시 입상. 기독교문인협회 회원.

고현혜

나는 나의 어머니가 되어

바쁜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서는 뒷모습을 보고
 돌아와 어수선한 부엌에 서면
 엄마가 그림다.
 엄마가 차려주시는 밥상이 그림다.
 기름기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에
 가시 발려 올려지는 생선구이
 따스한 국 한 그릇.

아이들이 먹다 남기고 간 프렌치 토스트
 메플시럽에 찍으며
 어머니를 기다리다
 나
 일어나
 햅쌀 한 줍 씻는다.
 남편 주려고 얼려 둔 생선을 녹이고
 아이들 주려고 끓여 놓은 국을 데운다.



1982년 고등학교 재학시 미국 이주. Biola University 사회학과 졸업.
 1987 크리스천문협에서, 그리고 올림지에서 시부문 신인상. 1993년
 '1.5세/Generation One Point Five' 한영 시집 출판. 2002년 산문집
 '1.5세 엄마의 일기장' 출판. 미주 중앙일보 '이 아침에' 칼럼 집필.

나는 나의 어머니가 되어
내 부엌에서
나의 밥상을 차린다.
고소히 익어가는 밥 냄새
알맞게 구워지는 생선
따스히 덥혀진 국의 불을 끄며
나는 나의 어머니가 되어
아직 어린 내 영혼을 먹인다.

곽상희

그 땐 시인이란 이름이

그 땐 시인이란 이름이 소중하게 간직되는
 때가 있었다
 그 땐 시인이 행복하던 때
 대쪽같이 곧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시가 되어 가슴을 울리는
 시인의 왕국인 때가 있었다

그 땐 시인들이 정직하게
 시의 넥타이를 매고
 시의 젓가락으로 절망과 희망을
 노래하던 때가 있었다
 꿈꾸는 별 몇 개가 밤 깊어 하늘에서 몸을
 휘날려 푸라다나스 나뭇잎에
 편안히 앉아도 좋은 때가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는 삼살개 한 마리가
 보름달을 짊어대도
 시인만이 아는 그런 깊은 뜻으로



《현대문학》으로 등단. 뉴욕 현대 예술 아카데미 등에서 다년간 문학강의, 제1회 박남수 시인 대상, 시집 5권, 영시집 1권, 수필집 3권, 소설집 1권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점잖게 타이르듯 말해도 좋은 때가 있었다

그 땐 시인의 앞에는
무한히 뻗은 길과
끝없는 지평선이 다정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때 그 풍경도
시도
고독도 변하지 않았는데

혹은, 절망 혹은,
희망도
그대로인데
혹은, 절망만이 있는 어두운 골방에서
아직 남아있는 봉화불같이 타는
아픔에 대해
가슴과 몸에 대해……

김내수

그림자 그림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너 있으니
나는 하나요, 둘이다

네 손길 끊겨 외로울 적엔 하나요
네 발길 맞아 기쁠 적엔 둘이다

내 안에
너 티끌 씨알 하나 심어 놓고 기다리면
순 트고 줄기 줄기 뻗고 꽃망을 터뜨리고
그 음(音)음(音) 한 꽃말 소리
나에게는
소중한 음(音)빛깔 영언(永言)이야

내 안 조그마한 우주에 흑암 어두움이 다가오면
너는
달 별 빛살 건너다가 밤 흑막 가르고



전남 곡성 출생. 내과의사. 《문학세계》 2001년 시 당선.

내 마음의 방안을 맑고 밝게 등불 켜다
그 등 불꽃 아래
새롭게 태어난 내 영혼의 그림자는
평생 불멸의 사랑, 행복, 평강을 위해
선홍색 환몽을 달래며 내 가슴에
그림자 벽 그림을 밤새워 두고두고 그린다
선 새벽 첫 닭울음 저 샛별 지도록까지

김모수

누가 누구를 구경하느냐

손자놈 덕에 30년 만에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갔다가
뒤바뀐 세상을 보았다

양심에 화인(火印) 받은
두 발 짐승들이
광명천지를 떼거지로 밀려다닌다

철망 속에 갇혀있는 순한 눈빛들
짐승이 사람되고
사람이 짐승되었다

팬다 한 놈이
높은 대나무 가지에 걸터앉아
야유(揶揄) 한 줄기 멋지게 갈긴다

누가 누구를 구경하느냐



《창조문학》시 등단. 미주한국문인협회, 재미시인협회 회원, 시와 사람들 동인. 저서로는 시집 『달리는 차창에 걸린 수채화』, 『주홍빛 신호등』이 있다.

세찬 오줌발 앞에서
인두겁을 쓴 나는 유구무언이다

김복숙

갈등

살갓 스친 상처는
외마디 함성으로
아픔을 대신하지만

생활에 흔들려
도배당한 아픔은
무엇으로 지울 수 없네

볼 수 있는 흔적과
볼 수 없는 자취가
의연하게 살아가는 세상

겹겹이 눌러 붙어
양과 껍질 벗겨내듯
집착을 벗겨내고
초심으로 돌아가면



서울 출생. <한맥문학> 신인상 수상. 샌프란시스코 한국문학인협회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동인집 『샌프란시스코 문학』, 『여성의 창』, 『프로는 아름답다』, 『해외동포문학전집』 등등.

만날 수 있을까
풀릴 수 있을까

그 안에
숨어 있는
신비의 비밀을.

김성수

밤이 아름다운 이유

낮에는 목련꽃처럼 눈부시고
 밤에는 동백꽃처럼 황홀하다
 천사의 고운 소리
 이슬 같은 맑은 숨결
 봄하늘 햇종다리 노래처럼
 여리고 싱그럽다
 어리광부리는 듯
 애교 살랑 넘치는 듯
 새콤달콤 딸기처럼
 산길에 들길에 싱싱하다
 참깨꽃이 올리 피듯
 마디마디 예쁜 이유
 걸을수록 걷고 싶은
 봇나무 하얀 숲길
 들을수록 듣고 싶은
 별들의 찬란한 이야기
 맘속에 조용히 둥지 트는



제2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봄노을의 빨간 연서
천리를 가도 향기론 꽃
만리를 가도 파아란 잎
사랑의 분홍 바람
용서의 초록 바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월 속에 출렁인다

김신웅

가을 까치

더디게 왔다 서둘러 가는
가을엔 까치 소리도 스산하다

언덕을 가린 오색 빛깔 사이로
얼비치는 흰 깃 사이의 검은 띠

낮과 밤을 안고 빛 속으로 잠기면
귀청 때리던 소리만 가슴골에 남는다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이다.
오색 어울린 빛들 속에 날개를 치던

억새가 온몸으로 흔들어대는
그 시절의 뉘우침을

이윽고 흰 눈발에 검은 얼룩으로
따로 남는 한 마리 새인 것을



50년대 토요 동인. 《시와 시론》으로 등단. 해외동포문학상, 가산문학상 수상. 미주 한국기독교문인 협회 회장 역임. 저서로는 시집 『대합실』, 『바람 없는 날에도 뜨는 연』이 있다.

김영교

겨울나무 소고

꽃이 지나간 후
여름을 도난당한 하늘
우울증에 내내 있을 포기하였다

나무는
흔들어 대는 바람에 흔들리며 비웠다
지각이 두껍게 월동준비를 하는 동안
팔을 벌린 채
언젠가부터 자주 눈 감는 버릇
못본 척 내려놓기만 하는
나무의 선택은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스치는 세상나무 표정들 훌훌 벗고
생명을 위해
부러지지 않으려
흰
무릎 꿇는 새벽



안데스 문학상, 해외 문학상, 이화문학상 수상. 현재 미주 한국문인협회 부회장. 저서로는 시집 『우슬초 讚歌』, 『신호등(Traffic Lights)』, 『물 한 방울의 기도』, 『너와나, 그리고 우리』, 『소리 지르는 돌』, 산문집 『길 위에서』가 있다.

안개 속 관계가 하늘 높이로 정돈될 때 쫘
밀치면 밀리기도
덜 주면 덜 받기도
때리면 맞기도
억울타 해서 스스로 뿌리 뽑아 옮겨지지 않는 나무
자기 길을 가고 있었다

벗은 겨울나무 하나
그 등줄기에
사선으로 쏟아지는 햇빛

뿌리는 계절의 잉태를 알고 있었다.

김희주

진짜

얼굴엔 보톡스
가슴엔 실리콘
명품 짝퉁가방 든
재생 처녀

이미 마셔버린
녹차 속엔
기준치 넘는 농약

해조탄산나트륨,
탄산칼륨으로 만든
중국산 인조계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뽕튀기 학력

찾았다!



부산출생. 《창조문학》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가짜 속 진짜 하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 강아지

문인귀

분명한 것

노아 홍수 때
천지를 덮은 것은 물이 아니라
소금이었다.

너나없이 꼭 차있는 못된 짓 뽑아내고
그리는 동안
죄 없는 육신 절여 두었다가
새 날이 되면
몸뚱이 그것,
속 보다 쓸만하다는 걸 알려 주시려
그러신 게 분명하다.



미주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회장 역임.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제12회 미주문학상 수상(2003년). 시창작교실 〈시와 사람들〉 운영. 저서로는 시집 『눈 하나로 남는 가슴이 되어』, 『떠도는 섬』이 있다.

박경호

포춘쿠키(Fortune cookies)

바삭거리는 샘베이를 깨뜨린다
그 속에 숨겨진
짙막한 명구나 삶의 지혜
때로는 예언 같은 것이 있어
호기심으로 흰 쪽지를 꺼내든다
“소식 전하세요, 누군가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잊고 사는 우리의 삶
누가 나의 연락을 고대하고 있을까
떠오르는 얼굴들이 아물아물 할 뿐이다

식당을 나서는데
이 작은 메시지가
자꾸만 따라 온다

집에 와서
전화기를 든다



경주출생. 시와 사람들 동인. 한국국제펜클럽 해외동포 신인 시부문 최우수상.

어렴풋이 기억나는 사람들에게
다이얼을 돌린다
내일 자장면이나 한 그릇 나누자고

이 비상한 상술에
웃음이 난다

변재무

춤을 춘다

그들은 음악 없이도 춤을 춘다
 지르박을 시작으로 밤마다 잔칫상 벌이고
 요란하게 춤을 춘다
 불빛이 싫은 높은 벽에 기댄 채 다리를 떨어대고
 힘 좋은 놈은 천정까지 기어올라 그 짓을 계속한다

HAVOC을 포식해도 놀랄 것 없다 슬플 것도 없다
 창자가 다 녹을 때까지 잔치는 끝나지 않는다
 나는 손뼉을 치고 그들은 춤을 춘다
 지르박 왈츠 탱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브루스를 춘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빙글빙글 돌다가
 정말 돌아버린다 새끼들 팽개치고
 년놈들은 가버린다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하다

빈 잔에 술을 따른다. 아내가 소리를 지른다



마산출생. 미주 《중앙일보》 논픽션 당선, 《창조문학》 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오랜지글사랑 모임 회장역임.

“니 창자는 마, 썩평이가!”

* HAVOC : 쥐약 이름. 이 약을 먹은 쥐는 취해서 마치 춤을 추듯 오락가락 하다가 죽는다.

석정희

섬에 홀로 남게 되는 2

북극의 얼음산들이
 천둥 같은 소리로
 무너지고 갈라지는 일 아니어도
 한 덩이 조각 땅
 외로운 섬에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던 먼 도시의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바다 건너에서
 내 스스로의 탈출을 기대할 뿐
 뚱뚱 떠가는 이 얼음 조각 섬에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구원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할키려는 칼날 같은 파도와



Skokie Creative Writer Association 영시등단. 한국 크리스찬 문학, 창조문학 시부문 신인상. 한국 문협, 국제 펜클럽 한국 본부 회원, 미주 문협 이사, 미주시인 전문지 편집기자, 미주크리스찬문협 사무국장, 제 4회 한국농촌문학상 해외특별대상 수상.

찬 눈발까지 물고 오는
살을 에는 겨울 폭풍 속
내 가여운 영혼은
용암처럼 흐르는 분노를
얼음산으로 싸늘하게 식히고
차라리 슬픈 외로움으로
가슴 시리게 아파해야 했습니다.

첫 슬픔이 잉태되던 빙하기
그보다 더 혹독한 슬픈 계절
저 루시퍼*의 폭풍들이 물러가면
밀려오는 미카엘*의 훈풍이
산에 두른 구름 떠를 걷어내고
푸른 하늘을 향한 초록 산정들이
힘있게 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 루시퍼(Lucifer)와 미카엘(Micahael) : 성경과 고대 신화에 나오는 사탄과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로, 루시퍼는 지상으로 쫓겨난 사탄들이고, 미카엘은 하늘의 천사들이다.

송정룡

천륜(天倫)

아흔 여섯 되신 어머니
 2년 동안 치매를 앓으셨다
 밥을 떠드리는 며느리를 몰라보고
 변을 가려주는 아들딸을 기억 못하셨다
 먼저 가신 당신의 남편도 한번 찾지 않고
 안타까워하는 손자 손녀가 손을 잡으면
 누구세요? 몸만 움츠리셨다

이승의 아픔이 아려서일까
 인연의 정 끊는 연습일까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은 어머니,
 오직 하나 잊지 않으신 것 있다
 - 우리 어머니 어디 있어?
 연신 찾으시는 것이었다

외할머니 돌아가신 지 오십 년이 넘었다
 어머니 하나만 잊지 않으신 우리 어머니



대전출생.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창조문학》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떨린 가지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어머니 하나만 붙들고 가셨다

어머니의 길은 하나였다.

신 소피아

절벽 위의 소나무

거친 벼랑에
서 있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두려움이거나 고난이 아니다
거센 몸부림이다

눈빛 깊은 것이다
곧은 마음이다
청아한 그리움이다

거침없이 헤쳐가는 태양이거나
사막의 오아시스거나
눈부시게 피어나는
사막의 가시 많은 꽃이거나
그렇게 지독한 것이다

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도 않고



Fuller 신학대학원 선교목회학박사 과정 중. 2005년 한국 월간문에 사조 신인문학상 수상. 현 California에 있는 Plumfield School 유치원 교사. 미주 크리스천문인협회, 재미시인협회 회원, 미주 한국 문인협회, 오렌지 글 사랑 모임 회원, "시향" 카페 동인 사화집 『시의 향기』 공저

흔들림 없는 바위 같은
노숙한 그대의 사랑이다

신 헬렌

마음의 병

조각 조각 부서진 뼈를
철심을 박아서 살렸다
막혀 버린 핏줄
우회 혈관으로 이었다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드는
이 좋은 세상에
그림은 모습을 그릴지언정
어찌 무슨 말을 전하랴

세상엔 의사도 많고 많지만
누가 이미
흘어진
흔을 불러줄까

마음에서 불리오는 병을
고치는 외과 수술이 있으면



미술대학 교수. 미주한국 문인 협회, 한국문인 협회, 한국시인 협회 회원. 저서로는 시집 『고래는 그리움을 낚는다』.

정말 살 만한 세상이 될 텐데……

안경라

가을편지

구월, 그대는 갔습니다
 더 이상 붙들지 못하는 사그러지는 빛
 달력 속 물든 나무들 총총히 사라지고
 부욱 뜯어낼 수 없는 그대 뒷모습

그대 안에서 이루어지던 누군가의 첫 날 밤과
 십일 일, 가슴 치며 통곡하던 수많은 눈물들과
 예고없는 이별과 그리움과

서른 장 엽서마다
 분꽃씨 같은 사연들이
 바람도 저녁 햇살도 다가설 수 없는
 저마다의 땅 속 깊은 뿌리로 돌아가고

보고 싶은 사람……
 그대 안에서 익던 눈물이 달콤하게 무거워지는 계절
 내가 사는 도시에든 한적한 산사의 풍경처럼



1982년 전국청소년백일장 시부문 장원, 1984~88년 비르소미오글벳 동인, 토요시 동인, 1989년 남가주 한국의 날 백일장 일반부 시부문 장원, 1990년 미주기독교문인협회 & 중앙일보 신인상 시 당선, 1997년 '한글문학' 시 추천 등단 2000~02년 북가주 소노마카운티 한국학교 교장 역임, 현재 재미시인협회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웹 간사.

땡그렁 땡그렁 낙엽 떨어지는
수척한 시월이 왔습니다
붉게 채워져 갑니다

안선헌

가을 산에는

엔젤레스 마운틴 들어선다

앞서온 가을바람
오리나무 이파리 옷을 입히고
바람에 등 비빈 나무
한여름 빨랫줄에 널어놓은 옷가지처럼
눈 부시다

바람.넌 숨은 풀꽃 하나 찾아
온 산자락 휘젓는가. 지금

비탈에 선 장송화
긴 막대기
목을 뻗 꽃대궁
생을 접는 그 메마른 눈물
바람이 말리고



경남 마산에서 태어남. 2002년 《순수문학》으로 등단.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바람의 발자취 따라
풀꽃 하나 일어선다

오연희

다이어리

생일은 붉은 색, 지불 마감일은 파란 색,
 이런저런 사연은 검은 색
 새해 다짐과 함께 쓰여진 기록들은 색깔 구분이 분명하고
 모양새가 반듯하다
 달이 더할수록 색도 모양도 제멋대로
 빠져 나온 글자, 비스듬히 쓰여진 약속시간,
 구석구석 혼란스러운 메모들
 돌아보면 나름대로 빛나던 날들이
 공평하게 배당받은 하루 속에서
 숨쉬고 있다

그 어디쯤
 한 달에 두어 번 암호처럼 은밀히 눈짓하는
 그리움으로 가슴이 메어질 때 더 잘 보이는 음력숫자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조상님조차 의미가 되어
 어스름한 달빛 헤집고 나온다
 왜 해마다 생일이 바뀌냐는 아이들의 투정이



〈심상〉시 등단, 〈해외문학〉수필 등단, 미주 《중앙일보》신춘문에 신인문학상(년픽션), 중앙일보 교육섹션 칼럼집필(2002년부터 만5년간), 미주한국문인협회이사, 웹 관리 위원장, 저서로는 시집 『호흡하는 것들은 모두 빛이다』, 산문집 『시차 속으로』가 있다.

전설처럼 남을지도 모르는,
뿌연 달빛처럼 기억될 그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
달빛 받고 태어난 세대는 점점 사라져 가고
태양처럼 빛나는 생명들 붉게 인치는
다이어리는 계속되고.

오정방

오레곤 연가(戀歌)

—미국이민 20주년을 맞으며

화창한 봄철에 핀 형형색색의 장미
 비 온 다음 여름철의 시원한 폭포
 황금빛 가을철의 화려한 단풍
 눈 온 뒤 겨울철의 눈부신 설경 등
 사시사철을 따라 언제나 만끽할 수 있으므로
 나는 오레곤을 깊이 사랑한다네
 맑은 날씨, 맑은 공기, 맑은 하늘
 푸른 숲, 푸른 들, 푸른 바다
 넓은 호수, 긴 강, 높은 산들,
 20년 세월에 어느 것인들 왜 정들지 않았으리
 취향에 따라 마음껏 즐길 수 있으므로
 나는 오레곤을 높이 사랑한다네
 낚시를 갈 것인가 등산을 갈 것인가
 캠핑을 갈 것인가 사냥을 갈 것인가
 랩팅을 할 것인가 골프를 칠 것인가
 아니면 온천에나 찾아가서 몸이나 풀 것인가
 입맛에 따라 작심만 하면 모두가 가능하므로



《세기문학》시, 미주 《중앙일보》시조, 《문학과 육필》수필 부문 등단.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오레곤문학회 회장. 시집 『다시 태어나
 도 나는 그대를 선택하리』, 『그리운 독도』, 『영혼까지 독도에 산골하
 고』(공저)

나는 오레곤을 길이 사랑한다네

* 필자는 1987년 9월 27일에 오레곤주 포틀랜드시로 이민와서 지금까지 20년을 같은 시에 살고 있는 오레고니언이다.

윤석훈

손바닥

욕조에 물 틀어놓고 변기에 앉아 똥을 누면서
 김종철의 시집 『못에 관한 명상』을 읽는다
 욕조에 떨어지는 물소리 듣다가
 무심히 욕조 모서리에 붙박혀 있는 거미를 본다
 명상에 잠겨있던 그의 몸 위로
 물이 차오르자 서툰 탈출 시도하는데
 욕조의 벽이 미끄러워 나뒹군다
 수십번 반복되는 노력에도 절벽을 오르지 못하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어디서 못 박는 소리 들리다 이내 조용해진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둘둘 감아잘라
 생명의 두레박처럼 그에게 풀어주었다
 정신 차린 그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무사히 득도(得道)하였다
 나는 화장지를 펴서 욕조의 턱을 넘겨
 세상 밖으로 길을 내 주었다
 저항하는 발길은 아름다운가



1960 강원도 양양 출생. 2003 현대시문학 등단. 미주시문학회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사무국장.

애써 다른 길 고집하는 여덟 개의 목발에
전등빛이 먼지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욕조 입구의 수직으로 뻗은 반들반들한 문틀을
오르고 오르다가 땀 다 쏟은 그가
욕조에 다시 빠지고 말았다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나가 버리려다가
뒤돌아 서서 손바닥을 물 속으로 집어 넣었다
병아리 가슴털 같은 그의 몸이
손바닥에서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금요일 밤의 일이었다.

윤종길

가죽 허리띠

카우보이 말안장같이 반들반들 잘 낡은
 친구의 가죽 허리띠는 아직 부인의
 분홍 꽃무늬 벽에 수직으로 걸려있다.
 남대문 시장에서 가 매고 온 건데
 원시림을 틀어안고 몸부림하던
 바다 건너온 부푼 바람줄
 이제 그만 불태우라 권해본다
 확 트인 초원의 나와
 새까만 뼈를 내려놓으려는 그녀
 십수의 겨울
 졸라매온 세월이 아까워 수직으로
 허리를 세운다
 작고 하얀 스니커의 끝이
 툭툭 풀뿌리 밑에 고독을 숨기고
 하늘을 본다 바다를 본다
 피식 웃고나면 슬퍼지는 표정
 색안경으로 곁에 다가와 선다 내 친구



1967년 지평선 동인, 한국시단 동인. 1997년 열린문학(한국) 신인상.
 2003년 재미시인협회 회원,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2005년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원, UPLI (국제계관시인협회) 회원. 2007년 UPLI 메
 달 : FOR EXCELLENCE IN POETRY 받음.

그토록 염원했던 환한 세상 한 자락
그 속에서 출렁인다
포말을 이고 춤을 춘다 유혹한다 췌 췌
꺼졌다 솟는 그 바닥 이전의 지역에서
바다는 끝없이 제 몸 뒤집어 하늘을 적신다

윤희정

그리움

아득히 오랜 옛집엔
내 부모 살아 계셨고
기와집 넓은 뜰엔
맨드라미 무성했던
그리운 그곳 내 집이었네.

꿈결 속에 가끔 다녀오는
그집 쪽마루엔
아직도 형제들 모습 변함없는데
헤어져 이렇게 아득한 곳에
오늘의 내가 있네.

그 시절 모든 추억들은
한조각 그리움 되어
마음속 깊이 맴돌고
이제 어디로 한없이 가는 것인지.



2003년 한국 한맥문학지로 등단,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세월의 탄식과 흐름 속에
먼 훗날 다시금 이날이 그리움 되리라.

이기윤

시내

찬양 부르며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만나는 상대마다
끼인 때를 씻어주고
모난 곳을 알아낸다

하늘 빛 받아
꽃 피고 열매 맺게 도우려
사랑을 실어 나르며
밧걸름으로 스며든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한의학박사. 한국문인협회, 한맥문학동인회, 오렌지글사랑모임, 회전그네시동인회, 재미시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저서로는 『내 마음의 무지개』(공저시집) 외 10권이 있다.

이용애

별이 빛난 밤

유성(流星)이 제일 잘 보인다는
 팔월 한 여름밤
 요세미티 밸리 풀밭에
 담요를 깔고 누워 유성을 기다린다
 도심에서 볼 수 없던
 맑은 하늘에 깔린 총총한 별들
 어느새 맑디맑은 고향의 밤하늘이
 내 머리 위에 와 있다
 누어있던 옆 사람이 소리친다
 아 저기 보인다 이쪽에도 지나갔다
 내게도 획 보여진 빛 줄기 하나가
 짧게 선을 긋고 사라진다
 이제 곧 네 살이 될 손녀가 소리친다
 아빠 나도 봤어 슈딩스타
 그런데 나 카일을 위해 위시켰어
 그런데 씨크렛이야
 아빠 따라 유성구경 나온



충북 음성 출생. 1974년 미국 이주. 1998년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98년 <문학세계> 수필 당선. 1998년 <한글문학> 시 당선. 1999년 한국 <현대시조> 신인상 당선.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원. 현재 미주 캘리포니아 거주.

손녀 레이첼의 서툰 이중언어
고 어린것이
동생을 위해 무엇을 소망했을까
오늘밤엔 유성보다 빛나는 새 별이
하나 떠올랐구나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반짝이기를

이윤홍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 돌멩이

그대 집 앞
 여름밤 흐르는 시냇가 보이고
 미역 감는 여인들의 웃음소리 들리고
 철부딩 거리는 물소리 들리고
 물 따라 흘러오는 꽃잎들의 향기에
 몸 달아오른 사내들
 폭-숨죽여 엿보는 모습 보이고

살며시
 동네 빠져나와
 손잡고 밀며 끌며
 상류로 숨어드는 두 사람 보이고
 옷 입은 채로 물탕치는 소리 들리고
 입맞춤 향기에 쓰러지는 나무들 보이고

집으로 옮겨온 돌멩이 속에
 아직도 밤새 켜있는 그대 방



미주 《한국일보》 시부문 당선.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재외동포문학
 상 시부문 입상. 국제펜클럽한국협회, 한국문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
 회 회원, 시와 사람들 동인.

환한 불빛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
돌멩이
내게 있다

장선영

연말

가장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고 싶을 때가
성탄절이 아닌가요?

세상에게
이웃에게
자신에게
용서를 하고
신뢰를 하고
그리워하며

비록 작은 그릇이지만
깊은 정 소복이 담아
주님께 예물도 올리고
들녘의 들풀처럼 엮으려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출생. 문예연구등단, 재미시인협회, 한국문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장태숙

우회(迂回)

살아야했다
 짧지 않은 답보(踏步)의 시간
 수직을 향한 타성은 물어뜯긴 자리에 묘비를 세우고
 낮은 포복으로라도 기어가는 수평의 덩굴손
 고양이 등처럼 둥글게 말아 숨죽여 뻗으면
 경계의 끝에 걸리는 팽팽한 축수
 안간힘으로 목숨의 끈 움켜쥔다.

차가운 담장 따라 계걸음으로 걷는 등나무
 살점 뜯긴 커다란 구멍의 상처가 육신거린다

새순 밀어 올리던 날부터 손가락 관절들
 싹둑싹둑 잘라먹던 옆집 개
 쇠창살 담장은 완벽한 단절을 하지 못했고
 녀석의 기습적인 공격을 방관했다
 사나운 이빨이 닿지 않을 경사진 땅 가늠하는
 저 덩굴손의 긴장된 집중



1990년 《문학공간》 수필부문 신인상, 1992년 《창조문학》 시 부문 신인상, 2001년 창조문학가상. 저서로는 시집 『내 영혼 머무는 곳에』, 『그 곳에 내가 걸려있다』, 『고요 속의 파문』이 있다.

여린 나무에게도 눈이 있다
그 눈으로 모진 세상을 보고
생각을 만들고 걸음을 익힌다
깊은 숨 몰아쉬며 천천히
눈치 채지 않게
은밀히

정국희

소포

내 자석이 목을 음식
 해찰 없이 열린 가라고
 비뚤비뚤 눌러 쓴 박스를 열자
 항상 니가 걸린다며 내 쉰 한숨이
 한 뒷박 갯바람으로 퍼져 나온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가락도 없는 저음이
 숨죽이고 있는 어둠 속
 한 때 비늘 세운 것들의
 눈초리를 모았음직한
 김, 파래, 멸치, 미역이
 줄어든 몸으로 앓았다가
 기지개를 켜다

내 새끼!
 몸성히 잘 있었냐고……



완도출생. 《창조문학》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시문학회 회원.

얼마나 살기가 힘드냐고……

정용진

허수아비

세상 온갖 남루를
한 몸에 걸치고
황금들에
구부정하게 서있는
허수아비.

달빛이 부서지는
황량한 들녘에서
텅 빈 고향을 지키는
낙향(落鄕) 선비의
청렴한 자태여.

알곡이 걷히고 나면
새떼들도 떠난 빈들에서
해진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홀로
찬 눈을 맞는다.



“지평선” 시인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회장 역임. 미주문학상, 한국크리스찬문학상 대상 수상. 저서로는 시집 『강마을』, 『장미 밭에서』, 『빈 가슴은 고요로 채워두고』, 『금강산』, 에세이집 『마음 밭에 삶의 뜻을 심으며』 외 1권.

오늘도 나는
내 영혼의 빈 잔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기다리며 서있는
목마른 허수아비.

조영철

눈

들판에 핀 하얀 눈
저 눈이 녹아난 봄철에
꽃은
무슨 색깔로 피어날까



부산출생.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서북미한인 미술인협회 이사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와 사람들 동인.

조주현

함께 가는 길

눈 뜨면 이승이요
 눈 감으면 저승이요
 다시 눈 뜨면 부활이라
 삶과
 죽음이 손을 잡고
 우리는 날마다 오르내린다
 이승 길
 저승 길
 함께 가는 길
 죽음을 등에 메고 가는 나그네여
 무엇이 우리를
 삶에만 집착하게 하는가
 욕망의 고리를 끊고 서면
 죽음은 불멸의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살기 위해 죽고
 죽기 위해 사는 것이라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 졸업. 1999년 한국일보 문예공모 시부문 입선.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Poetry
 Member. 2006년 8월과 12월, International Library of Poetry로부터
 Editor's Choice Award 2회 수상, 작품은 "Timesless Voice" 시집
 에 실림.

만물은 죽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리

차신재

장마

물에 젖은 사람들이
화면 속에서 떨고 있다

지루하게 서있던 미루나무가
미친 듯 몸부림치고
순하게 짹짹거리던 냇물이
벌떡 일어나 온몸을 뒤틀며
엄청난 구정물을 토해낸다

다급함을 알리는 건지
신명이 난 건지
한 옥타브 올라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센 물살 속에 곤두박질치며
사방을 헤매고 있다

계곡의 급물살을
아슬아슬 가르는 구멍줄에



강릉출생. 《심상》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목숨을 건 피서객들
풍랑에 휘둘리는 미역줄기처럼
후루루 후루루 물려다니는 숲과 나무들
찢어진 비닐하우스

허리까지 차오른 물길 속에서
쓰러진 벼를 바라보는 허탈
진흙 범벅 가재도구를 쓸어 안는
아낙네의 울음 투성이
쓰레기와 흙탕물로 뒤엎켜버린
꿈, 희망, 분노, 절망 같은 것

휩쓸리는 물살 속에
뒤틀리고 헝클어지는 삶을 보며
의심은 시퍼렇게 질어만 간다.

채수옥

적막

그늘진 곳에 걸어둔 장미 한 다발
 어느 늦은 오후 노을진 창가에서
 무심히 마주친 눈길
 검게 마른 물골로 서걱이는
 까실한 몸짓

삶을 놓아버린 싸늘한 적막이
 슬픈 고요로 멈추어 선 꽃잎 속을 맴돌고 있었다
 어떤 끝자락에도 기댈 수 없는
 마지막 수액을 앗기우고
 던져버린

일몰을 보듯 그렇게 저버린 삶
 껴안았던 절망을 넘어선 지금
 이젠 편안해진 걸까
 소리 없는 빈 시간이 평온으로 말라 있었다.



강원도 강릉 출생. 1986년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 시 당선. 한국〈한글 문학〉시 당선.

어디쯤에선가
형벌로 다가온 자책이 시린 마음을
조여오고 있었다.

최석봉

가을이여

여름 지나고
다가올 추운 겨울 앞에
너는 슬픈 것이다

새봄 애써 꽃피워
익힌 열매 남기고
겨울 속으로 사라지는
고독한 가을

슬픈 가을이여
겨울 숲으로 들어가
더 깊숙이 감추고
꽃피우는 일 잊었으니

가을이여
꿈 잃은 가을이여



《창조문학》시, 《아동문학》동시 등단. 미주 시문학 회장 역임.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부회장. 저서로는 시집 『원원 세분 오 에잇 베니스 블루버드』, 『하얀강』, 『풍경은 혼자 울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소리는 아름답다』가 있다.

최익철

분재

넓은 정원
수목 한 그루
올라서면 마음의 샘 키워간다고
잘려나가는 큰 뿌리

뻗으려는 걸가지 잘려나고
흥측해지는 모습
이파리마저 뜯기운다

오르지 못하는 몸부림
뜨거운 목마름
뒤틀린 몸뚱어리
눈물도 말라
비뚤어진 입과 눈

사람들은 둘러서서
감상문을 쓰고.



강릉출생. 월간순수문학등단. 시집 『빛바랜 사진첩』.

추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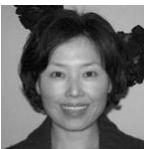
예감

맞바람이 분다.

한 방울의 예감이
젖빛하늘에 걸렸다.

맑은 한 방울에
목을 축일 땅의 바램을
하늘이 들어주려나.

수런대는 맞바람에
세상이 술렁인다.



《문학세계》, 《미래문학》 시부문 신인상.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홍인숙(그레이스)

저녁이 내리는 바다

겨울비를 안고 있는 바다에서
갈매기의 비상을 바라본다

나는 내 삶의 흔적으로
산과 바다를 훑힐 날고 싶다 하고
그는 조용히 흙에 머물고 싶다 한다

세상이 두려워 잠금쇠를 풀지 못했던 나는
홀로 천지를 날고 싶어 하고
자유로움을 원했던 그는
한 곳에 묵묵히 정착하고 싶어 한다

아이러니 속에서도 한 가지는 같은 생각
먼저 떠나는 사람이 호강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길 배웅 받고
홀가분히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시마을》, 《한맥문학》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세계한민족작가연합,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저서로는 시집 『사랑이라 부르는 고운 이름 하나』, 『내 안의 바다』가 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회색의 바다에는 오늘도 부슬부슬
저녁이 내린다